

성 체 위

□ 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성 체위는 종교적인 믿음에 바탕을 두었었다. 하늘은 여신이 지배하고 대지는 남신이 지배한다고 믿었으므로 여성 상위가 용납되는 체위였다.

사도 바울에 많은 것을 기초한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성행위는 오직 생식만을 위해 존재하여야 했고, 여성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자유가 없었다. 오직 남편의 강한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이런 유태-기독교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1950년대까지 어두움 속에서 남성 상위 체위만을 주로 행해 왔다.

인도, 중국, 페르시아, 일본 등에는 성에 대한 체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 중국의 [소녀경]에서는 30개의 기본 체위, 그리고 인도의 [카마수트라]에는 529개의 서로 다른 체위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성의학 이론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체위는 남성 상위, 여성 상위, 측면위, 후면위 4개의 체위이다. 나머지 체위는 이것을 적당히 혼합하거나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성 체위는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해방과 더불어 성의 목적이 생식에서 보다 더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체위에도 많은 변화가 온 것이다.

변화한 것은 체위의 형태만이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전회의 시간이다. 1950년도 이전, 킨제이 시기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경험한 전회라는 것은 몇 번의 키스에 불과하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전회 시간도 12분 정도였지만 오늘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대부분 평균 15분 이상씩 전회를 한다.

사정 조절 능력에 대한 기술도 성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킨제이 조사 때만 해도

결혼한 부부의 3/4이상이 삽입 후 2분 안에 사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평범한 서양인들도 보통은 평균 10분 정도를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킨제이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3분 안에 사정이 끝나는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일부 의사가 있다. 이제 시대도 달라졌고, 여성의 기대치 역시 많이 변하였다. 여성의 성 반응 상 평균 15~20분 정도의 시간을 끌어 주어야 많은 경우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된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성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는 것이다.

사실 성 체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녀경이다, 카마수트라다 해서 다양한 성적 기술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체위, 무슨 체위라고 하는 정형화된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부부들은 쑥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체위를 시도해 보지 않는다.

오르가슴에 대한 걱정 없이 이러저러한 체위를 재미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성이 삽입을 하게 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성 자신이 편안하게 삽입할 때의 각도를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삽입을 시작할 때부터 강하게 삽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스터스와 존슨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얇고 천천히 왕복 운동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각 체위에 따른 기본적인 장단점을 간단히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상위

가장 흔한 체위로서 음경의 삽입이 쉽고, 눈의 접촉과 키스를 여성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체위이다. 사정한 후에 정액이 질경부 가장 가까운 곳에 모이기 때문에 임신이 가장 쉬운 체위이다.

단점이라면 남성의 몸무게가 무거운 경우 압박감이 많이 느껴 여성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음경 삽입의 깊이를 여성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남성에게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 자신의 몸무게를 팔꿈치와 무릎에 계속 의지하여야 하는 만큼 피곤을 느끼기 쉽다.

또 다른 큰 단점은 남성 상위 체위에서는 남성의 사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남성의 몸무게가 비교적 무겁거나 조루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후반기에는 좀 곤란한

체위이다.

여성 상위

남성 상위와 달리 이 체위에서는 여성이 주도권을 잡고 자유롭게 움직임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 남성은 여성의 가슴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가슴이나 다른 부위를 자유롭게 애무할 수도 있다.

여성 상위는 성 기능 장애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체위로 남성의 조루증이나 여성 불감증이 있는 경우에 주로 처방을 내리는 체위이다. 조루증이 있는 경우 일단 여성 상위로 행동 요법적인 훈련을 하고 그 후 사정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면 측면위와 남성 상위로 넘어가게 한다. 여성 불감증 환자를 치료할 때도 대개 남성이나 여성이 음핵을 손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 체위에서부터 연습을 시작하게 된다.

측면위

몸무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키스나 다른 전희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위이다. 단점이라면 삽입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여 음경이 질 밖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후면위

눈을 마주볼 수 없으며, 입과 입으로 키스를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체위보다 친밀감이 떨어지고 마치 항문 성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잘 하려 들지 않는 체위이다.

이 후면위에서 심하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드물지만 음경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 측면에서 후면위로 삽입을 하는 체위는 임신 말기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7]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옥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신개념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02-512-1101)>

